No. 21 배당·주주환원 읽는 시간 10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환원 100조 원, 설비투자와 비교하면 어디에 더 쓰고 있을까?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각각 100조 원 안팎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을 설비투자와 비교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차이, TSMC·마이크론의 선택, 호황기 주주환원을 볼 때 조심할 점까지 발표 자료로 따져 봅니다.

한 줄 결론

삼성전자는 2026년 주주환원(90~110조 원)이 설비투자(약 84.4조 원)의 1.07~1.30배(직접 계산)이고, TSMC는 0.35배, 마이크론은 0.05배로 번 돈을 나누는 방식이 회사마다 크게 다름

확인할 숫자

설비투자, 주주환원 총액,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비중, 환원 정책 기준, 특별배당 여부, 순현금



사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 타워크레인, andrechinn, Flickr.

목차

1. 회사가 번 돈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2. 삼성전자는 설비투자와 주주환원 중 어디에 더 쓸까?
3. SK하이닉스의 100조 원은 어떻게 구성될까?
4.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게 어떻게 다를까?
5. TSMC와 마이크론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눌까?
6. 호황기의 주주환원을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7. 주주환원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 이 글은 각 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나 배당·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수익률을 설명하는 회사 E, F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주주환원 100조 원」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래서 내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궁금했던 적 있을 겁니다. 숫자는 큰데 그 돈이 배당인지, 자사주인지, 올해만인지 내년에도인지는 제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반도체 회사들은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TSMC와 마이크론의 선택까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로고: 이 글이 비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각 사의 상표이며 회사를 가리키는 데에만 쓰고 후원이나 보증을 뜻하지 않음. Wikimedia Commons.

01

회사가 번 돈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회사가 영업으로 번 현금이 갈 곳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설비투자입니다. 공장과 장비를 사서 내일의 매출을 준비합니다. 둘째는 주주환원입니다. 배당을 주거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셋째는 그냥 쌓아 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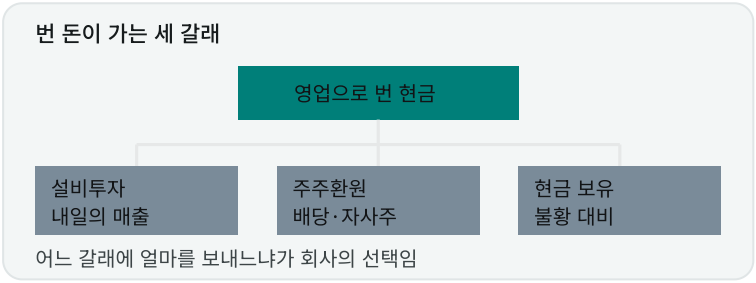


그림 1. 번 돈의 사용처를 단순하게 나눈 그림. 빚을 갚는 것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세 갈래의 비율에는 회사의 생각이 담깁니다. 설비에 많이 쓰면 「앞으로 더 팔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주주에게 많이 돌려주면 「지금 번 돈이 쓸 곳보다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숫자 뒤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02

삼성전자는 설비투자와 주주환원 중 어디에 더 쓸까?

먼저 설비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29조 원을 썼습니다. 그중 반도체(DS) 부문이 27.2조 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12.2조 원, 1년 전보다 19.8조 원 많습니다. 1~9월 누계는 56.9조 원이고, 회사는 2026년 연간으로 약 84.4조 원을 예상했습니다(2026.10.29 발표).



사진: 경기도 평택 나노시티의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뉴스룸.

다음은 주주환원입니다. 3분기 배당은 주당 4,601원, 총 30조 원입니다. 회사는 2026년 전체 주주환원을 90조~11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조 원은 이미 계획했거나 집행했고, 나머지 55조~75조 원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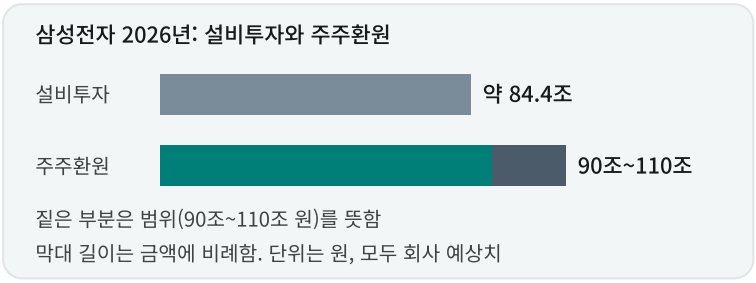


그림 2. 출처는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2026.10.29). 최종 주주환원 규모는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정해짐.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주주환원이 설비투자의 1.07~1.30배입니다(직접 계산). 공장에 쓰는 돈보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이 더 많은 해라는 뜻입니다.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린 상태에서 나온 숫자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최종 환원 규모와 집행 방법을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위의 폭이 20조 원입니다. 작은 폭이 아닙니다.

03

SK하이닉스의 100조 원은 어떻게 구성될까?

SK하이닉스는 2026년 주주환원 목표를 약 100조 원으로 밝혔습니다(2026.10.28 발표). 구성도 내놓았습니다. 현금배당이 30조 원 이상이고, 자사주 매입·소각이 60조 원 이상입니다. 자사주 60조 원에는 8월에 발표해 매입을 끝낸 40조 원이 들어 있고, 회사는 이를 곧 소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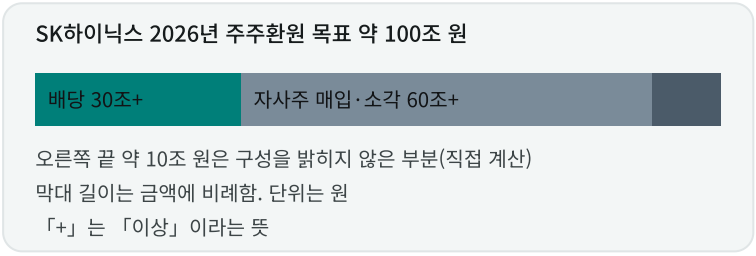


그림 3. 출처는 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2026.10.28).

3분기에 실제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3분기 배당은 주당 20,000원(총 14조 원)인데 절반은 특별배당입니다. 실적에 따른 정기 배당이 10,000원이고, 나머지 10,000원은 키옥시아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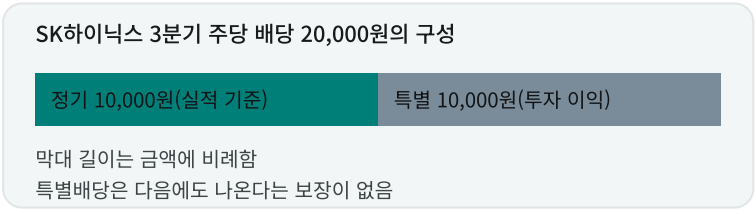


그림 4. 같은 20,000원이라도 반복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음.

둘째, 3분기에 결의한 자사주 매입 20조 원이 전부 주주환원은 아닙니다. 10조 원은 주주환원용으로 전량 소각하지만, 나머지 약 10조 원은 임직원 보상에 쓸 주식이라 회사 스스로 주주환원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모두 주주 몫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설비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7년 투자가 올해보다 크게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무 체력은 넉넉합니다. 현금성 자산 114.5조 원에서 차입금 15.8조 원을 뺀 순현금이 98.7조 원입니다.

04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게 어떻게 다를까?

배당은 현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확인 필요: 배당소득세율과 기준 시점]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전체 주식 수가 줄어 1주가 차지하는 몫이 커집니다. 가상의 회사 E로 보겠습니다. 한 해 이익이 100억 원이고 주식이 100주라면 1주당 이익은 1억 원입니다. 10주를 사서 소각하면 주식은 90주가 되고, 같은 이익에서 1주당 이익은 약 1.11억 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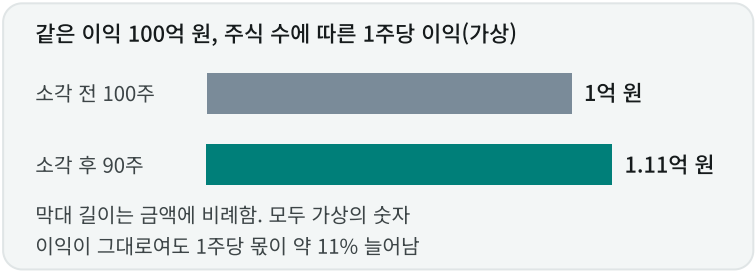


그림 5. 가상 예시. 소각은 현금 대신 「1주의 몫」을 키워 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각」입니다. 사들이기만 하고 없애지 않은 주식은 나중에 다시 시장에 나오거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규모가 아니라 「소각」 규모를 봐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의 계산은 자사주 소각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진: 높이가 조금씩 다른 동전 더미, Au Kirk, Flickr.

이처럼 같은 100조 원이라도 배당 30조 원과 자사주 60조 원은 주주에게 닿는 방식이 다릅니다. 배당은 지금의 현금이고, 소각은 앞으로의 몫입니다.

05

TSMC와 마이크론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눌까?

해외 회사는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TSMC는 3분기에 영업현금흐름 NT$9,197.7억(대만달러)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NT$4,432.1억을 설비투자에 썼고, NT$1,555.9억을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번 현금의 48.2%가 설비로, 16.9%가 배당으로 간 셈입니다(직접 계산).



그림 6. 출처는 TSMC 2026년 3분기 경영보고서(2026.10.15).

TSMC의 방식은 「투자를 먼저 하고, 배당은 꾸준히 올린다」에 가깝습니다. 2026년 설비투자 계획은 600억~640억 달러이고, 1~9월에 이미 406.4억 달러를 썼습니다. 분기 배당은 2분기분 주당 NT$7에서 3분기분 NT$9로 올렸습니다. 28.6% 인상입니다(직접 계산).

마이크론은 더 극단적입니다. 2026 회계연도(2026년 9월 3일 종료)에 영업현금흐름 896.75억 달러를 벌어 설비투자(순액)에 273.67억 달러를 썼습니다. 주주환원은 자사주 매입 6.5억 달러와 배당 6.1억 달러로 합쳐 12.6억 달러입니다. 번 현금의 1.4%입니다(직접 계산). 남은 돈은 쌓였습니다. 현금과 투자자산이 734.8억 달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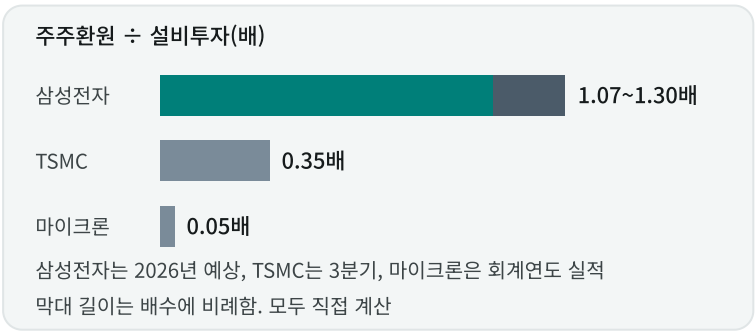


그림 7. 기간이 서로 달라 대략의 크기만 비교한 그림. SK하이닉스는 설비투자 금액을 밝히지 않아 뺐음.

이처럼 같은 반도체 호황에서도 선택이 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설비투자보다 많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TSMC는 투자가 먼저이며, 마이크론은 거의 전부를 투자하거나 쌓아 둡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뒤 업황이 답을 줍니다.

06

호황기의 주주환원을 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주주환원 뉴스가 가장 화려한 때는 이익이 가장 큰 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첫째, 환원 정책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설비투자를 뺀 돈)의 50% 이상을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번 돈이 줄면 환원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의 발표 자료에서는 이런 비율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올해의 배당으로 계산한 배당수익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가상의 회사 F의 주가가 10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호황인 올해 정기 배당 4,000원에 특별배당 4,000원을 더해 8,000원을 주면 배당수익률은 8%입니다. 평년에 3,000원을 준다면 3%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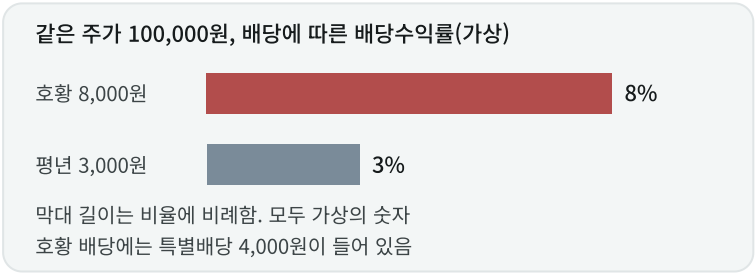


그림 8. 가상 예시. 가장 많이 준 해의 배당으로 계산하면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옴.

이익이 가장 큰 해에 PER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호황기의 배당수익률은 「이 배당이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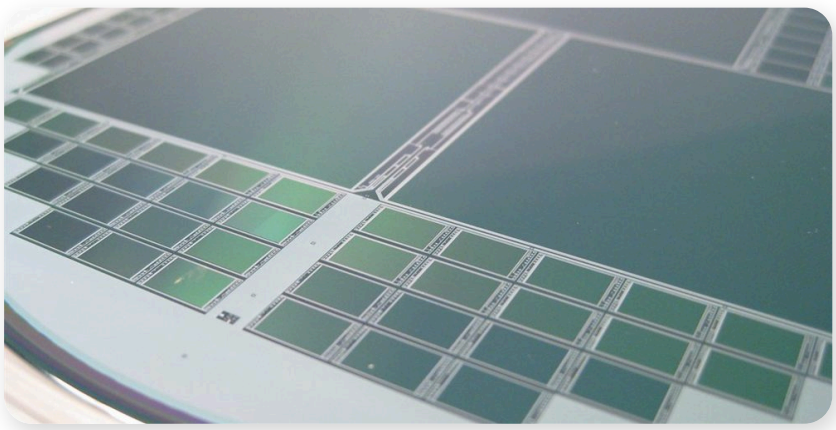


사진: 반도체 칩이 새겨진 실리콘 웨이퍼, Windell Oskay, Flickr.

셋째, 설비투자가 같이 늘고 있는가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설비투자 29조 원은 1년 전보다 19.8조 원 많고, SK하이닉스와 TSMC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설비는 몇 년 뒤 공급이 됩니다.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번 돈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오늘의 환원 규모는 내일의 업황에 달려 있습니다.

07

주주환원 뉴스를 볼 때 던질 여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주환원 ○○조 원」이라는 제목을 볼 때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 돈은 설비투자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 삼성전자는 2026년 주주환원 추정치가 설비투자 예상의 1.07~1.30배입니다. TSMC는 0.35배, 마이크론은 0.05배입니다.

2. **"배당인가, 자사주인가?"**
   → SK하이닉스는 배당 30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 원 이상입니다. 배당은 지금의 현금이고 소각은 앞으로의 몫입니다.

3.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는가?"**
   →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입 20조 원 중 주주환원용 소각은 10조 원이고,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용입니다.

4. **"정기 배당인가, 특별배당인가?"**
   → SK하이닉스의 주당 20,000원 중 10,000원은 투자 이익에서 나온 특별배당입니다.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환원 정책이 금액 기준인가, 비율 기준인가?"**
   →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처럼 비율 기준이면 번 돈이 줄 때 환원도 줄어듭니다.

6. **"확정된 숫자인가, 추정치인가?"**
   → 삼성전자의 90조~110조 원은 추정치이고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100조 원은 설비투자와 견줄 만큼 큰 돈이지만, 그 안에는 배당과 소각, 정기와 특별, 확정과 추정이 섞여 있습니다. 「어디에 더 쓰는가」의 답은 회사마다 달랐고,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다음 업황이 알려 줍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회사의 주주환원 공시에서 「소각」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2026.10.29): 3분기·누계·연간 설비투자, 분기배당(주당 4,601원, 총 30조 원), 2026년 주주환원 추정(90조~110조 원)과 확정 일정
- 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2026.10.28, 잠정): 3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2026년 주주환원 목표와 구성, 잉여현금흐름 50% 이상 환원 방침, 현금·차입금·순현금, 2027년 투자 전망
- TSMC, 2026년 3분기 경영보고서(2026.10.15): 영업현금흐름, 설비투자, 배당 지급액, 2026년 1~9월 설비투자 누계. 2026년 설비투자 계획(600억~640억 달러)과 3분기분 배당 NT$9(이사회 승인, 2026년 11월)는 TSMC 배당 안내 페이지와 Focus Taiwan 보도
- Micron, 2026 회계연도 4분기 보도자료(8-K, 2026.9.30): 영업현금흐름, 설비투자(순액), 자사주 매입, 배당 지급액, 현금과 투자자산
- 주주환원÷설비투자 배수, TSMC의 사용처 비율과 배당 인상률, 마이크론의 환원 비율, SK하이닉스 목표의 나머지 약 10조 원은 위 자료의 숫자로 직접 계산한 값
- 회사 E, F와 그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분류·태그 배당·주주환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반도체 #삼성전자 #설비투자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chip-cash-use.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